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동호회입니다. 족구 동호회가 생겼습니다. 족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마당으로 1시 30분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각 선교회는 한 해의 활동을 정리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시기 바랍니다.

생협에서 절임배추를 판매합니다. 10Kg(3,4포기)에 20,500원입니다. 주문하신 배추는 11월 27일과 12월 4일에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던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선물해 보십시오. 초록가게에 기증하셔도 좋습니다.

- * 예배 전에는 잠잠히 스스로를 돌아보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소란한 언행으로 다른 이들의 목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 * 예배 후 준비된 식사를 맛있게 드시되 잔반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식 당 봉 사 : 박혜경 조항미 김윤정 이은주 김민화 김정우 백묘현
 11/20 식당 봉사 : 고숙이 최현옥 이준림 서정순 오송경 조관행 김필순
 오늘설거지봉사 : 서효진 정윤성 김영아 하현철
 다음 주 설거지 : 최재욱 이수정 최경미 강지은
 새 교 우 : 강현주(7여) 이소리(7여) 김혜민(청년) 현우리(청년)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 전 주 반주자
-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다함께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20(통41).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다함께
-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날마다 힘써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바라보는 노을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루의 생활과 한 해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붉은 거울이 됩니다. 감사와 기쁨보다는 후회와 아쉬움이 더욱 많습니다. 주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보람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만족함 가운데 지는 해를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에 불꽃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 한 사람 속에서 타오른 희망의 횃불이 이 사회 곳곳의 어둠과 추위를 몰아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 희망의 횃불이 많은 곳으로 번져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그 횃불을 손에 드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 위로의 말씀 사43:1 인도자
- ♣ 교 독 문 24. 시편46편 다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 대표기도 방문성 장로
- 응 답 송 찬양대
- 찬 양 93. 예수는 나의 힘이요 다함께
- ♣ 성경봉독 I. 마11:16-19 방 준 선생
 II. 시139:13-18 이증자 집사
 봉독자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 중 :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 찬 양 찬양대
- 말 씬 I. 물드는 삶, 물들이는 삶 손성현전도사
 II. 나는 기적이다 김기석 목사
- 거둠기도 다함께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장영숙 김준우 우순덕 권미숙 김순복 김용길 최영혜 김일랑 이은옥
 김정길 최숙화 김희진 박홍재 백묘현 이한림 김명희 정재정 김남종
 오복순 이진영 한양미 이우원 옥귀희 조병익 조정연 임고운 무명

월정헌금:

김명순 이교영 김영순 김종철 고영애 김현주 박옥순 이성범 이소순
 이수정 배재경 이유선 방극숙 이인웅 오송경 전영자 정두리 이민범
 정은선 이건설 신영신 김용태 박정숙 정현선

감사헌금:

박민경 박규신 광새롬 조병주 조병무 송양진 송원길 이창영 김희선
 양재성 임미심 홍성식 이우리 5여선교회 무명5

	장혜숙	백혜숙	송임희	박영희
	노순옥	정경례	김미순	이준림
	임정자	최경미	이재문	정복순
	문영혜	이명희	신영신	박경원
	안정숙	진정숙	조병주	김혜권
	박홍재	곽권희	정선희	조영순
	박효선	허정윤	박효선	임미심
	이순정	김금순	강순배	이봉옥
	이형숙	권미숙	권미숙	김재광
	안홍숙	오현정	오현정	이증자
	정영선	이현숙	홍춘숙	정영선
	이영란	박미영	윤정화	박미영
	박혜경	조항미	최희정	최영혜
	김재홍	오자영	교회	교회
	김기석	이근식	교회	교회

고무신에는 귀가 있다

김상현

정갈스럽게 닦은
 낫달 같은 흰 고무신을 신고
 길을 걸으면
 아주 작은 조약돌 하나가
 내게 하는 말도
 발바닥으로 전해들을 수 있다

간혹
 돌부리에 채이면
 번쩍,
 인생은 아픔도 있다는 것을 다시
 공부하게 된다

피 흘림의 가족구두가 지배하는 21세기를
 고무신을 신고 걸어보면
 문명이 아닌
 잊혀진 흙의 말, 돌의 말, 모래의 말을
 들을 수 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운선 김수진 김보라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해경	

찬 양	304(통404).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이 친히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자신을 귀히 여기며 사십시오. 산다는 것 자체가 은총이요, 기적입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십시오.	
다함께 :	아멘. 생명에 대해 그 어떤 신비감도 느끼지 못한 채 무더진 마음으로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우리 몸에 새겨진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겠습니다. 일상 곳곳에 담겨진 주님의 은총을 헤아리며 살겠습니다. 하루하루를 기적으로 받아들이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축 복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교회	고린도전서 / 김재홍 목사 기도 : 이현숙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홍 목사	공동기도	윤형준 학생
	김기석 목사	한상의 장로	김훈동 권사

11월	영접위원	방문성 김종락 김대근 박영신 백성래 정현숙
	헌금위원	조병무 이형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나는 송이인가, 소나무인가

봄 두릅, 가을 송이. 봄가을 제철 음식을 나는 이같이 표현하곤 한다. 두릅과 송이 사이에는 공통점이 거의 없지만, 내게는 있다. 여럿이 모여 먹는다는 것이다. 봄에는 친구들과 함께 두릅 잔치를, 가을에는 송이를 놓고 지기들을 불러 모은다. 봄 두릅은 경기도 남양주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 후배 시인이 보내 주는데, 새벽에 산에 올라 직접 딴 것이어서 향기가 보통이 아니다. 몇 번 두릅 맛을 본 친구들은 봄이 오는가 싶으면 연락을 해 와 “두릅 먹을 때가 되었는데” 하며 먼저 귀뜸을 한다.

하지만 송이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워낙 귀하고 비싼 것이어서 최상품은 꿈도 못 꾸다. 그리고 굳이 최상품을 먹을 까닭도 없다. 강원도 양양이 고향인 후배에게 온라인으로 몇만 원을 송금한 뒤 “D급 1킬로그램만 보내라” 고 하면 며칠 뒤 스티로폼 박스가 배달된다. ...

두릅 맛은 일찍부터 알았지만, 송이는 한참 뒤에야 만났다. 육칠 년 전, 삼십대 후반에야 처음으로 송이 맛을 보았다. 인사동의 한 카페였다. 그 날 나는 혼자 그 카페에 들어섰는데, 마침 한 테이블에서 고기를 굽고 있었다. 워낙 음식 솜씨가 좋은 주인이어서 더러 별식을 내놓곤 했는데, 그 날은 조금 달랐다. 미술 평론가와 출판사 사장 등 평소 아는 얼굴들이 눈에 띄었다. 나를 보자, 대뜸 의자 하나를 비우며 와서 앉으라는 것이었다. 등심에 와인, 그리고 송이버섯이 있었다. 아, 그 때 처음 맛본 송이의 맛과 향이라니. 불판에 살짝 구운 것도 일품이었지만, 날것을 가늘게 찢어 소금에 짚어 먹는 송이회가 더 훌륭했다. 그 날, 내 반생은 송이 이전과 송이 이후로 나뉘었다. 나는 단 한 번에 송이에 넘어갔다.

송이 맛을 본 그 이듬해, 속리산 언저리에서 농사지으며 글을 쓰는 친구를 만나러 갔을 때, 그 친구가 송이버섯 이야기를 꺼냈다. 속리산 소나무 숲에도 송이가 제법 난다는 것이었는데, 송이 철이 오면, 그 친구는 버너에 라면 몇 개 넣고 산에 오른다고 했다. 송이를 따다가 출출해지면 버너에 라면을 끓이는데, 거기에 송이 부스러기를 한두 개 넣으면 라면 맛이 ‘환상적으로’ 변한다는 것이었다. 그 귀한 송이를 라면에 넣어? 나는 친구가 송이를 모독한다고 생각했다. 나에게 송이는 제철 음식 가운데 가장 높은 데에 자리잡고 있는 ‘귀족’이었다.

송이는 소나무와 공생 관계이다. 소나무 뿌리 끝부분에서 자라는 송이는 소나무부터 탄수화물을 공급받는 대신, 소나무에게 땅 속의 무기 양분을 전해 준다. 일방적인 기생이 아니라 쌍방향의 공생이다. 전문가들이 이 공생 관계 때문에 인공 재배가 어렵다고 한다. 소나무와 공생하며 자라서 그런 것일까. 송이는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린다. 송이는 자신의 맛과 향을 잃지 않으면서도 음식의 맛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켜 준다.

몇 해 전, 홈쇼핑이 막 시작되었을 때, 북한산 송이를 ‘충동구매’한 적이 있다. 북한산이어서 그런지 가격이 높은 편이 아니었다. 며칠 뒤 송이가 왔는데, 등심과 함께 살짝 구워 먹다가 날것을 소금에 짚어 먹기도 했다. 송이가 온 주말, 문득 속리산 친구가 떠올라, 평소 잘 먹지 않던 라면을 끓였다. 라면이 푹 익었을 때, 송이 몇 조각을 넣어 보았다. 아, 그것은 라면이 아니었다. 전혀 새로운 음식이었다. 국물 맛이 그렇게 깊고 부드러울 수가 없었다. 그 뒤 모든 음식에 송이 몇 조각씩을 넣었다. 된장찌개는 말할 것도 없고, 콩나물국에도 넣었다. 송이는 모든 음식과 ‘공생’했다. ...

지난여름, 청송에서 한옥 체험관을 하는 친구가 청송에도 송이가 제법 나온다고 한번 내려오라 했지만, 결국 틈을 내지 못했다. 이번 가을에는 친구들을 불러내 송이 잔치를 하지 못하고 넘어간다. ...

내 삶은 공생이라기보다는 기생이었다. 내가 받은 은혜들을 나는 얼마나 쉽게 잊어버렸던가. “은혜는 돌에 새겨 넣으라” 는 서양 속담이 있다. 그만큼 은혜를 잊기 쉽다는 말이다.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지 않는 개구리도 마찬가지다. 은혜를 입지 않은 인간, 올챙이 시절을 거치지 않은 개구리는 없다. 생태적 삶이란, 이 땅이, 이 물과 공기가, 이 음식이, 나아가 이 지구와 우주 전체와 내가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공생은 ‘대화’ 이기도 하다. 송이와 소나무는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내 삶의 뿌리 끝 부분에는 어떤 송이가 있는가. 송이버섯인 나는 또 어떤 소나무의 뿌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인가. 나는 언제 송이이고, 또 누구에게 소나무인가. 친구들아, 송이는 없지만, 겨울이 오기 전에 한번, 한번은 모여야겠다.